



밤마다 술판... 탐동광장 결국 '빗장'

제주시, 이르면 오는 30일 광장·산책로 폐쇄 市 "방역지침에 따라 폐쇄 시기 변경될 수도"

밤마다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 제주시 탐동광장이 결국 폐쇄된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23일 '탐동광장 및 테마거리 일시 폐쇄 행정명령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시안을 보면 오는 30일 0시부터 탐동광장 1만2430㎡와 테마거리(서부두윗길거리-라마다호텔 방파제) 1.3km 구간에 진입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약 3500만원의 예산

을 투입해 1.5m 높이의 쇠기둥을 곳곳에 박은 뒤 그 위에 그물망을 씌울 예정이다.

폐쇄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밤마다 수 많은 인파가 몰려 술판을 벌이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500m에 이르는 음주·취식 방지용 드림 및 그물망을 설치하고, 급기야 지난 12일부터는 탐동광장 일대 가로등까지 전면 소등했지만, 이러한 술판을 막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탐동광장 일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최대 5배(1t)까지 늘었다.

그러나 산책객들의 보행권 차단은 물론 쇠기둥에 그물망까지 설치하면서 과도한 대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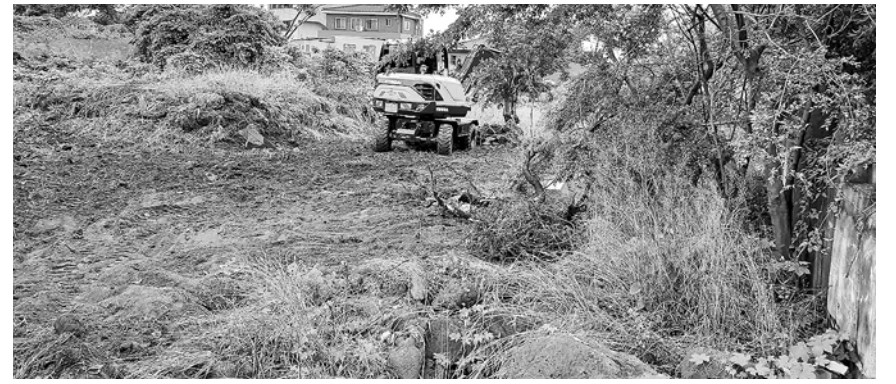
앞서 안동우 제주시장은 지난 9일 간부회의에서 "사업장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제한되면서 시민들이 야외 광장으로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탐동광장은 운동과 산책보다 술을 마시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인력 현황에 따라 폐쇄 시점이 변경될 수도 있다. 여기에 18일 제주자치도 방역당국의 사회적거리두기 회의 결과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정확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폐쇄 이후에는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비슷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해수욕장 주변 음주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시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가 재개되면서 주민·행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화북중계펌프장 주민·행정 '갈등' 도상하수도본부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 17일 재개 주민들 '악취로 고통... 물길 막아 침수 피해까지'

제주시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 시설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재개되자 주민과 도상하수도 본부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와 화북중 주민들을 17일 오전 화북중계펌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으로 하천을 매립해 펌프장을 만들고 주민들은 악취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며 "당장 공사를 취소하고,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펌프장을 철거해 하천을 원상복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이날부터 화북 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를 재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상하수도본부는 시설 용량 초과로 인한 하수 처리를 위해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행정은 같은 해 8월 12일 의견이 수렴될때까지 공사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음에도 공사가 시작돼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장창수 곤울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 감사는 "1993년 펌프장 개설 당시 화북천을 매립하면 2갈

래 물길을 1갈래로 막아버려 태풍이 나 집중 호우 시 침수피해가 상당하다"고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 물길을 차단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펌프장 개설은 위법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월류수 처리시설 관련 사업설명회에서 하수 처리를 단순히 빗물에 섞인 쓰레기를 걸러내 하천으로 내보내는 사업이라고 속여 주민 동의를 받아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역주민들은 "단순히 빗물에 섞인 쓰레기를 걸러내는 사업이라고만 설명했을 뿐 하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며 "주민들이 반대하니 공문을 보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주민의 요청에 의해 진행됐고, 사업 설명회도 수차례 진행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답했다는 입장이다.

고성찬 도 상하수도본부 제주하수 운영과장은 "월류수 처리시설 사업은 이를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인·허가 등 사업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 공문을 보낸 것도 정보 차원에서 알리기 위함이지 협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민성기자



밀동까지 잘려 나간 참나무 17일 제주시 아라동 양지공원 인근 하천에서 수습된 참나무 50여그루가 중장비를 동원한 불법 벌목으로 잘려 나간 현상이 목격됐다. 강희민기자

제주시장 고재우·서귀포시장 김지형

제주도소방본부 정기인사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7월 1일자로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17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소방령 고재우 구조구급과장이 제주소방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김지형 소방정책과장이 서귀포소방서장으로 전보됐다. 또 김영호 제주소방소장은 소방정책과장으로, 황승철 119종합상황실장은 구조구급과장으로 임명됐다. 양



고재우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

인석 서귀포소방서장은 119종합상황실장을 맡게 됐다. >>인사명단 14면

'음주운전 사망' 고의성 공방 오픈카 운행중 연인 사망케 한 30대 첫 공판

음주운전으로 연인을 사망케 한 30대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향후 '살인의 고의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를 여행 중이던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연인 B씨와 렌트한 오픈카를 몰다 도로 연석과 주차된 경운기 등을 잇따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되돌아 오지 않았다. 결국 이듬해 B

씨는 숨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A씨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B씨에게 '안전벨트 안맸네?' 라고 물었고, 이후 곧바로 차량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나긴 했지만,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은 무리가 있다"며 "초단위로 나오는 차량 운행기록에도 피고인은 사고를 회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있었다"고 맞섰다.

장 부장판사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이 아닌 이상 누구도 판단 못하는 상황"이라며 오는 8월 9일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지인 아들 강제추행 40대 여성 징역형

지인의 지적장애 아들을 강제로 추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11시쯤 제주도내 한 식당에서 지인과 지인의 지적장애 아들 B(20대)씨가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 B씨의 옆자리에 앉아 B씨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송은범기자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전기(산업)기사 / 전기기능사(필기+실기)취득과정

대상: 실업자·재직자·일 반
교육기간: 상시모집
교육시간: 19시~22시
교육내용: 전기(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비
문의: 725-5545

커피 바리스타 과정

대상: 실업자·재직자·일 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자격증 취득 및 창업 관련
문의: 725-5545

컴퓨터(OA관련, 전산회계) 과정

대상: 실업자·재직자·일 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OA관련(사무자동화, ITQ, 컴활2급), 전산회계
문의: 725-5545

2021년 제1회 전기기능사실기 9명 응시 9명 합격(100%)
문*민, 한*남, 강*열, 김*현, 옥*환, 이*석, 정*완, 최*영, 최*혜(총9명)

제주직업전문학교
제주시 서서로 81 (삼도1동) 중앙여중 정류장, 진영마트 맞은편
064)725-5545 (http://www.jejuvs.co.kr)

그랜드 보청기

그랜드보청기 확장이전 파격할인!!
구매고객 20만원 상당 녹음선착순 증정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청능사,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총돌 훈저 전화 주선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리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경구역 2층 제주시 서서로 225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